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마 6:9-10)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하늘과 땅의 영역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먼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빛과 사랑으로 넘칩니다. 기쁨과 평화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빛 대신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습니다. 기쁨 대신에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평화 대신에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우리가 빼앗겼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으며,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2.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는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살전 4:3).

3.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를 각오할 때 오히려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Your Will be done

(Matt. 6:9-10)

Jesus, through the Lord's Prayer, prayed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Father's Kingdom in Heaven, and the Father's Will.

Heaven is the place where the Father's Will is completely done. Jesus asks the Father for the 'Father's Will to be completely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 The territory between Heaven and Earth is God's Will being done

God's will is always completely realized in the Heaven. The soldiers and angels in the Heaven, and Christians who have been saved, altogether enter into the obedience of God's will with a joyful heart. That's why there is a fullness of light and love in Heaven. There is only joy and peace.

However, how is the world that we live in? Here, God's Will is not completely realized because there is the power of Satan. And those who are servants to Satan disobey God's Will. Consequently, there is darkness instead of light in the world, hatred instead of love, pain and sorrow instead of happiness, and fights and warfare instead of peace.

On the other hand, because our Jesus Christ gave the offering of obedience to God and died on the cross in order to clean our sins, He gave the sovereignty of the world to God that we were lost in. Therefore, God, our Father delegated the sovereignty of the Heaven and earth to His son Jesus Christ. Now, Jesus delegates its authority to us.

2. The Father's Will that should be done on the earth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 12:2).

The Apostle Paul teaches us that we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which was made by the enemy, Satan who has acted as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But instead we mus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ur mind and know what "the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of God" is, and live our lives entirely for this.

God's Will is that all spirits in the world have to be saved. In order for this to be realized, the Son of God, Jesus Christ came to the world. Moreover, it is God's Will that we should always rejoice. Pray continually, and thank in any circumstance. And He also wants our life to be sanctified (1 Thess. 4:3).

3. Christians' life in the Will of God

We fully understand what kinds of life Christians have through the life of Jesus Christ in order to realize God's Will. Jesus Christ came to the world to do it, and fully and completely lived His life in obedience to the Will of God. Moreover, in order that God's Will might be done, Jesus readily died on the cross.

When we prepare for death in order that God's Will may be done, we, all the more, are alive.

My beloved Christians!

By living your life for saving all spirits, and by living your life of rejoicing always, praying continually, and thanking always, and by living your holy and unique life in Christ, your faith should be progressive.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God's holy people to realize God's Will on the earth.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100년"

- 온 장로교회가 하나로 -

9월1일(토) 오후 3시 / 잠실실내체육관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가 9월1일(토) 오후3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100년 - 온 장로교회가 하나로"라는 표어와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여호수아 3:5)를 주제성구로 삼고 기념대회를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찰함으로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분명

히 하게 된다.

이번 기념대회는 총 4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에서는 한장총 27개 회원 교단이 하나의 장로교단임을 선언하고, 2부 연합예배는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 및 성찬식을 거행하며, 3부 축하와 감사에서는 장로교 형제자매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되고, 4부 폐회식을 끝으로 마치게 된다.

한교단 다체제를 향한 연합과 일치의 마당이 될 기념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제4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 3일(월) - 11월 11일(주일) (10주간)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전도와 교회성장"을 주제로 9월 3일(월)부터 11월5일(월)까지 10주간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열린다. 1교시(오후2시-3시30분)는 김정우 교수가 창세기 강해(12-50), 2교시는 주제에 따라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기 2교시 강의는 전도 특강이므로 70인전도대 및 일반 성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하반기 열린프로그램도 9월3일(월)에 개강하여 11월11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성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 일정은 하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2012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주	월/일	주 제	강 사
1	9/3	파워 관계 전도법	송기배 목사 (가정사랑학교 대표)
2	9/10	아파트 전도법	김인아 목사 (구하리교회)
3	9/17	전돗개 전도법	박병선 집사 (순천순동교회)
4	9/24	해피데이 전도법	김한욱 목사 (새안양교회)
5	10/1	휴 강 (국군의 날)	
6	10/8	빌립 전도법	변은미 전도사 (빌립 전도협회 대표)
7	10/15	전도? 전도! 전도...	김문훈 목사 (포도원교회)
8	10/22	WEA(세계 복음주의연맹)- WCC(세계교회협의회) Dialogue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원로,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9	10/29	오이코스 전도법	이상만 교수 (오이코스코리아 대표)
10	11/5	에심 전도법	김기남 목사 (부천에심교회)

강 좌	요일 및 시간	담 당	장 소
성경 로마서 반	월,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과목 마가복음 반	목, 오전 6:00-7:00	박진아 목사	602호
(10주) 느헤미야 반	금, 오전 6:00-7:00	정수길 목사	602호
성경통독 반(10주)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 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1:00	한상은 목사	601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꼬꼬마가베 학교	목, 오전 10:00-12:00	최인에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수, 오후 8:30-10:00	Steven Martinolich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9/9 - 11/11)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 (5주간)	주일, 오후 12:30-1:30 (9/9 - 10/14)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 중급반	주일, 오후 12:50-1:50(초급반) 주일, 오후 4:00-4:50(중급반) (9/2 - 12/9)	임규현 목사	606호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1]

(문 58) 민수기 35:30 말씀은 단순한 정황(또는 간접적인 추리적) 증거만 가지고는 살인자라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답) :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민 35:30)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6에서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용어가 죄의 현장에서 죄를 목격했거나 의미한다면 공중 앞에서 살인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증언자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 계명을 범한 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범법자의 1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생명은 생명으로'(출 21:23, 신 19:21)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살인자는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Hittite 법전과 같은 다른 법률구조에서는 사형할 사람 대신 피값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31 말씀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라고 했고 33절에서는 '...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를 알지 못해 미결로 되어있을 경우엔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를 위하여 목을 꺾으라고 했습니다(신 21:3-7). 이것은 살인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증인이 없어 살인자 열 명 중 한 명 정도 벌을 받는 것은 살인을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고 두 증인을 요구한 것은 살인자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재판할 때도 요구된 것이었습니다(신 19:15).

그리고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되기를 거부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레 5:1). 여기서 두 종류의 증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본 사람과 직접 목격자는 아니나 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출 22:13, 수24:25-26). 따라서 두 세 사람의 증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을 신중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다락방리더훈련 개강 다락방 모임 재개

그간 휴강하였던 다락방리더훈련과 다락방모임을 재개한다. 다락방리더훈련 개강은 8월 29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이며 장소는 웨스트민스터홀이다. 다락방 모임은 8월 31일(금)부터 다시 모이게 된다.

한국장로교총회 설립100주년 기념대회

한국장로교회는 하나될 수 있을까?

100
한국장로교총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를 장로교회가 하라



다음은 오는 9월 1일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한국장로교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한국장로신문에 실린 이종운 원로목사님의 칼럼 전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장로교 총회설립100주년기념대회가 2012년 9월1일(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7개 장로교 총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100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과제를 크게 도전을 받는다.

이 시대에서 분열된 장로교회가 분열 이전의 교회 즉 한교단 조선야소 교장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 선언을 하게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언필칭 교회는 하나라고 말은 하지만 한국장로교회는 분열을 거듭해 오지 않았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는 한교단 다체제를 이루어 이 땅에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 전통을 따르는 하나의 교회임을 선(先)선언, 후(後)조직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한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

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연합총회 헌법을 제정했다.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친 이 헌법은 한장총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를 거쳐 각 교단 총회로 보내져 부의한 후 연합총회 참여 결의를 한 교단들이 헌법따라 연합총회를 조직하게 된다.

“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고 분열시킨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민족 앞에
공헌할 수 없다
”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같은 제도로, 각 총회는 지금의 조직과 헌법을 그대로 독자적으로 갖고 연합총회 회원이 되어 대정부문제, 남북문제, 선교사문제, 난립되고 있는 신학교육 문제 등을 다루어 하나된 장로교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것이다.

분열된 한국장로교회들 중 공통점을 찾아 공유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가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표준신앙고백이다. 그 신앙고백 위에 연합장로교회를 세우고 개혁교회의 전통적 예배

와 성례전이 같으면 연합하라 한 요한칼빈 목사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기에 필요충분조건을 이미 다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고 분열시킨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민족 앞에 공헌할 수 없다.

지상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를 한 조상을 가졌다는 고

신파나 군사독재 정부시대에 민주화 투쟁에 목숨을 걸었던 기장파도 있다.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연합할 수 없다. 교회 성장과 선교사 파송에 열과 성을 쏟은 합동파가 있다면 기독교학교나 기독교병원 또는 고아원 양로원을 많이 세워 복음을 삶으로 체현한 통합파도 있다. 통합, 합동, 기장, 고신이 다함께 하면 한국장로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열하여 자기만이 제일이라 자랑하면 온전하지 못한 헛된 자랑 즉 교만의 죄를 짓고 칭찬 대신 책망과 저주감이 될 것이다.

고린도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있었다. 아볼로는 성령을 듣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신자 또는 이단이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성령에 대해 가르쳐 주고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적대시 하던 우리의 형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며 성령님의 사역인 한 몸 된 한교단 다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를 이룰 수 있도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백년을 내다보며 기도하자.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영적 재충전과 도전

서명철 목사

한국 기독교는 초기 매서인(賣書人)들의 말씀과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성장하였다. 매서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한 쪽복음을 숨기고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초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이제 100년이 조금 더 된, 짧은 한국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온 세계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침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만 오늘 한국교회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금번 제 4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전도와 교회성장'을 주제로 정하였다. 1교시는 종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정우 교수님께서 주옥같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2교시는 한국교회의 전도와 교회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저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다.

전국에서 초교과적으로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재충전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금번 세미나의 2교시 특강은 본 교회 70인 전도대원들뿐만 아니라 전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서울성경대학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 되게

정수길 목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깊이 헤아리며 영적인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땅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대적과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으므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우리 서울교회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에 성경공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생의 경륜과 구수한 입담으로 어렵게만 여겨지는 로마서를 알기 쉽게 안내해주시는 서명철 목사님과, 깊은 영적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마가복음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신 박진아 목사님, 성경통독을 통해 우리를 달고 요모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실 황광 목사님,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전하기에 힘쓰는 정수길 목사가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을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살롬경로대학 개강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살롬경로대학



장양일 집사(살롬경로대학 부장)

살롬경로대학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교회 성도는 물론 교회 근처에 사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오는 9월 6일(목)부터 개강되는 하반기 살롬경로

대학에는 유명 강사들의 특강과 특별활동시간의 솜씨자랑, 에어로빅, 핸드벨, 종이접기, 풍선만들기, 시와 노래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6일(목)부터 11월1일(목)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진행되는 살롬경로대학에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부대학개강

전도까지 이어지는 주부대학

이은옥 권사(주부대학)

주부는 연령층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공통관심사를 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백화점을 비롯하여 주민센터까지 왜드하고 있어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주부대학은 그들과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전도의 열매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여 즐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작은 활력소가 되어줄, 그러면서도 교회가 주는 편안함을 공유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주부대학 스텝, 한상은 목사님은 고심하며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봄학기 때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참여하는 회원들 덕분에 힘을 얻었고, 매 프로그램마다 맡으신 강사님들이(모두 우리교회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오셔서 알차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인 커피여행에서 회원을 비롯한 스텝들까지 만족스런 분위기에서 마칠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가장 많으셨던, 일본과 한국을 오가시며 생활하시는 타교회 교인이셨던 주부님이 기억납니다. 아주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시고 끝나면 8층에서 점심도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일본에 다녀오시느라 한번 빠지셨는데 오실 땐 선물도 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강의를 좀 더 젊었을 때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러번 말씀하시면서 서울교회에 고마워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도 꼭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봄학기 때 "손님초대요리"가 인기가 많아서 이번 학기에는 3강좌로 늘렸습니다. 맡으신 권사님께서 재료를 풍성하게 준비해 오셔서 함께 배우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이어지는 푸짐한 시식으로 더욱 행복했습니다. 사진과 회화와 관련된 시간에는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칭찬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고 행복해지는 강의를, 주님의 품안처럼 편안한 서울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속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소소하지만 즐겁고 유쾌한, 그리고 확장시절의 설렘을 다시 한번 꿈꾸어 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주부대학을 통하여 삶에 작은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종천목사, 협동목사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중인 원종천 목사(1955년생)가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게 된다. 원종천목사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석사 M.Div), 역사신학(철학박사 Ph.D.)을 수학하였으며 9월 첫 주부터 신앙강좌 2부를 담당한다.

생후 첫 주일예배시 축복기도

출생 후 처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담임목사의 축복기도를 받기 원하는 신생아의 부모는 주일 전에 교구목사에게 신청한 후 403호 영아부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종료 20분 전까지 본당 2층으로 내려와서 안내를 받는다. 한 예배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예배 시간에 받도록 안내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월27일(월) 목회와 신학 인터뷰를 한다. 28일(화)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 헌법위원회를 소집한다. 30일(목) 영등포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수련회 특강을 한다. 9월1일(토) 사랑의 쌀운동과 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 설교를 한다.
- 수상 : 2교구 이동만 집사 아시아기술경진대회(싱가포르)창작부문(금메달), 종합(금메달)
- 주간식당봉사: 리브가전대회(8.26) 제1스데반회(9.2)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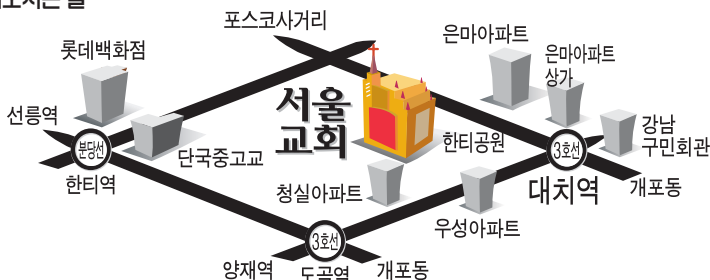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월 1일(토) 오후 3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한교단 다체제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2. 이제 곧 시작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열린프로그램, 그리고 열린 사랑의 바자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이뤄지도록
3. 개강하는 다락빌리더 훈련을 통해 서울교회 다락방 사역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며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